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대학병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상태 비교

Comparison of Health Status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of University
Hospitals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이지욱

대학병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상태 비교

지도교수 이 윤 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19일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이 지 욱

이지욱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이 윤 환 (인)

심사위원 김 문 식 (인)

심사위원 전 기 흥 (인)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2011년 6월 29일

감사의 말씀

본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던 저에게 자상한 가르침과 언제든지 시간을 할애 해주신 이윤환 지도교수님의 은혜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문식 교수님과 전기홍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바쁜 가운데도 혼신의 힘을 다해 치료하는 우리 재활치료팀 식구들과 설문 문항이 많아 질문에 답하기 힘들셨을 텐데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를 후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양가 부모님과 양선숙 선생님, 김동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공부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과정과 함께 저를 도와주신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에 힘들었을 텐데도 묵묵히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준 사랑하는 아내(혜선)와 건강하고 멋지게 태어난 우리 아기(시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1년 6월

이지욱 올림

차 례

감사의 말씀	i
차 례	ii
표 차례	iv
그림 차례	v
국문요약	v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틀	3
4. 이론적 고찰	4
1) 비정규직의 개념	4
2)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비교	5
2) 병원근로자의 건강실태	7
4) THI에 관한 고찰	9
II. 연구방법	11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11
2. 연구도구	11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3
III. 결 과	13
1.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	13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호소점수 비교	15
1) 고용형태	15
2) 성별	16
3) 연령	17
4) 직업	18

5) 근무형태	19
6) 연봉	20
3. 생활습관에 따른 건강 호소점수 비교	21
1) 흡연	21
2) 음주	22
3) 평균수면	23
4.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THI 호소점수와의 관계	24
IV. 고찰	26
V. 결론	30
참고문헌	32
부록	36
Abstract	43

표 차 례

표 1. THI 척도항목과 내용	10
표 2. Scales of Todai Health Index	12
표 3.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	14
표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룹 간 THI 호소점수	15
표 5. 성별에 따른 THI 호소점수	16
표 6. 연령대별 THI 호소점수	17
표 7. 직업군별 THI 호소점수	18
표 8. 근무형태별 THI 호소점수	19
표 9. 연봉별 THI 호소점수	20
표 10.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THI 호소점수	21
표 11. 음주횟수별 THI 호소점수	22
표 12. 평균수면 시간별 THI 호소점수	23
표 13.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THI 호소점수와의 관계.....	25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기본 틀4

그림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만성질환 증상이환율7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내의 대학병원 3곳을 대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보고, 건강 측정 표준척도의 한 방법인 THI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본 조사는 경기도내의 대학병원 3곳을 선정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 항목, THI 건강 조사 설문지에 자기 기입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함수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2.0K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결론 :

일반적 특성으로는 정규직이 149명(54.2%), 비정규직이 126명(45.8%) 이었고, 조사 대상자 275명 중 189명(68.7%)이 여성이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THI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12개의 THI항목 중 9개의 항목이 비정규직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경질(E), 충동성(H), 정서불안정(J), 우울성(K), 허구성(L)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THI 건강 호소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그룹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THI 호소점수를 보면 비정규직군의 E(신경질), H(충동성), K(우울성), L(허구성)항목의 점수가 정규직군보다 높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그룹의 THI 호소점수 비교에서는 E(신경질),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의 점수가 정규직군보다 높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경험이 있는 그룹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THI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E(신경질),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수면 시간별 점수비교에서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그룹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의 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호소점수가 높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호소점수가 높았다. 향후 대학병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문제와 근로자의 생활 습관 행태와 관련된 보건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화의 진전,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기업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으로 비정규직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나채인, 2005).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7년 IMF이후 기업과 대형병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쉽게 채용하고,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노사갈등문제 및 의료파업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의료산업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증가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술하겠지만 의료산업분야 전체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0%에서 2008년에 27%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산업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현상은 의료산업 고용유연화로 인건비절감을 기할 수 있기에 사용자의 병원경영 영리화 추세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사업부문의 외부화(spin out)같이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정규직의 업무보조형태가 아닌 정규직 업무의 대체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길광철, 2009). OECD 국가의 비정규직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 형태로 여성에게 주로 발견되지만,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일제 근로이며, 남녀 모두에게 발견되고 있다. 외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일자리와는 별도로 새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정규직 보완형' 이라면 '정규직 대체형' 이라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1986년 미국 국립직업안전건강연구소(NIOSH)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30여종의 직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조사한 결과 심장질환, 고혈압, 위궤양, 신경장애 등의 질병이 특히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고, 그 직업 중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하였다(이준영 등, 2004). 따라서 환자를 대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진료지원부서, 진료보조원, 행정부 등의 병원 근로자들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Cross(1970)는 직업 또는 직장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안정성, 장래성, 적응성, 동료들 간의 대인관계 등에서 불안이 스트레스의 요인이라 밝히고 있으며, 직업스트레스 3가지 형태는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실직, 낮은 봉급, 인식부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직업불만족, 작업환경, 업무내용), 조직적 구조적 스트레스(사회 상호작용, 고립, 역할갈등)라고 하였다. 직업적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신적 행동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스트레스의 표현은 전혀 감지 될 수 없는 반응부터 부정적 감정, 압박감, 불안, 우울 등이 첫 신호가 되기도 하고 인지 기능 및 역할 수행능력의 결여를 동반 할 수도 있다. 이는 직업과 사회적 안녕에 연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정신적, 행동적, 신체적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Kalimo 등, 1987).

손미아 등(2003)에 의하면 여수건설, 조선업종, 철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건강실태와 건강권보장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의 연구결과를 보면 직업불안정성이 건강장해(근골격계질환, 직업적 스트레스, 스트레스 증상, 피로도, 결근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보여주고 있어 직업의 불안정성, 비정규성이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 병원근무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향란, 2003)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직업불안정성이 스트레스의 원인이었고, 스트레스와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증가

할 수록 건강지표(콜레스테롤, γ -GTP, 혈당, 혈압)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대학병원의 비정규직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Today Health Index를 이용한 건강자각 점수를 통해 건강상태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내의 대학병원 3곳을 대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고, 건강 측정 표준 척도의 한 방법인 THI(Today Health Index)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병원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활습관 변수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THI 건강 호소점수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활습관 행태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각각의 THI 건강 호소점수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3. 연구의 틀

대학병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조사하여, 일반적 특성과 생활관련 변수를 비교해 보고, 그에 따른 건강조사표THI(Today Health Index)를 이용

한 건강 호소점수를 알아보았다. 일반적 특성에 고용형태, 성별, 연령, 직업, 근무형태, 연봉(항목)이 포함되어있고 생활습관에는 흡연, 음주, 수면 시간(항목)이 포함되어있다. 연구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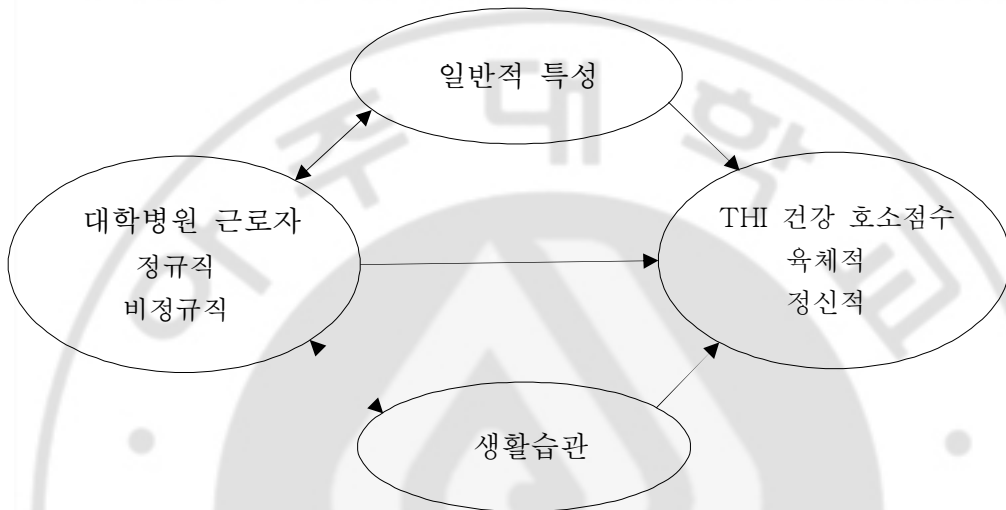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기본 틀

4.이론적 고찰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며 ‘정규근로’의 잔여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혹은 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는 사용자에게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며, 그 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혹은 비전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조애진, 2009).

이러한 비정규직의 주요한 구분요소로 직업안정성(Job stability), 보호

임금(Sheltered wage), 상향이동가능성(Upward mobility), 기업 수혜적 혜택부여(Company sponsored benefit) 등의 보장여부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분된다. 이밖에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유형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의 분류에 의하면 비정규 근로형태의 일반적 유형은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 정도를 말하고 있으며, 임시직 근로자의 유형으로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사람입국 일자리 위원회, 2006).

미국의 Feldman 등(1994)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보험과 연금혜택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본인의 보유능력보다 낮은 곳에 배치되고,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업무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선을 제공하지 못하며(불안정한 고용상태), 비인간적이며 기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조사된바 있다. 또한 직무배치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업무수행보다는 정규직의 보조적인 업무 수행 및 주변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정규직에 비해서 직업안정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며, 여러 면에서 정규직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대학병원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똑같은 직업군에 배치되어 정규직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낮은 연봉, 연금제도와 복지혜택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비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건강 수준이 좋지 않은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양한 형태의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상태

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에 영향 받는 경향이 크고, 그에 따라 높은 노동강도, 더 긴 노동시간 등을 감수하며 노동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비정규직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규직 중심 구조 아래에서 이루어진 노동조건들을 해체하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정규직 중심 구조 아래에서 조직된 노동 체계에 비정규직이 포함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의 부재, 교육의 부재 등으로 건강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셋째, 비정규직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은 그나마 정규직에게는 적용되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건강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노동조합 등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나 체계를 가지기 힘들다는 것도 그러한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이상훈 등, 2004).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각종 질병에 자주 걸리며, 이는 특히 직업 관련성 질환인 경우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미약하지만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유무, 가구소득에 따라 건강수준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고용상태가 건강상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더니 비정규직의 건강상태가 정규직에 견줘 1.5배가량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고되고 있다. 백도명(2003)의 연구에 의하면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정규직의 48.7%에서 지난 2주 동안 앓았던 질병 내지는 증상이 있었던 반면에, 비정규직에서는 53.1%에서 질병 내지는 증상을 갖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지난 3개월간 앓고 있던 만성질환을 파악하였을 때에도 정규직은 58.7%, 비정규직은 61.8%가 만성질환을 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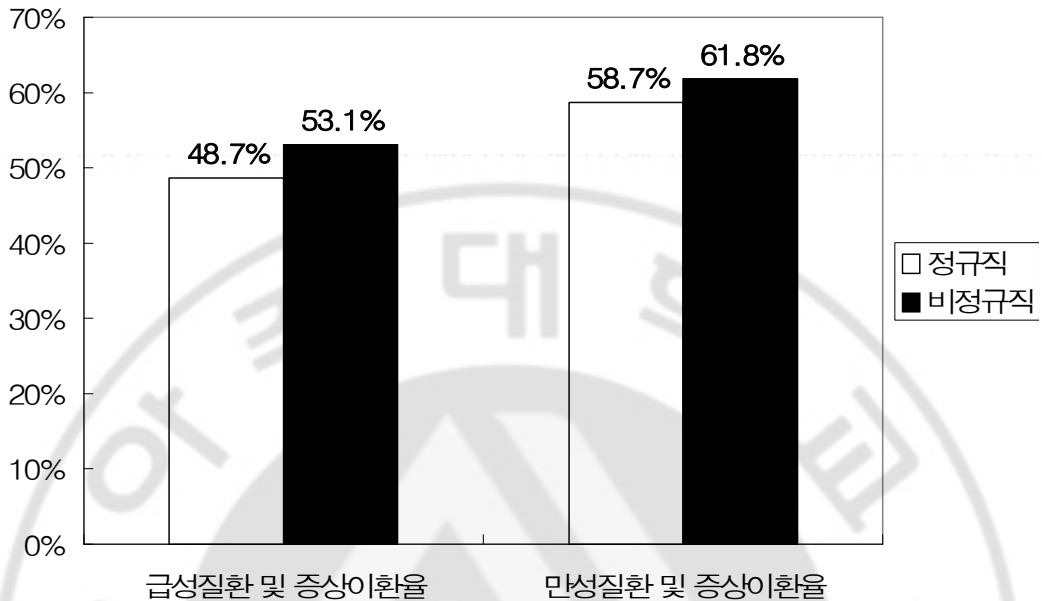


그림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만성질환 증상이환율(백도명, 2003)

3) 병원근로자의 건강실태

병원은 특성상 환자치료와 환자만족도 향상을 위해 병원 내부 직원들의 건강을 위협받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직원의 다양성, 인력부족, 과도한 업무량,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있을 것이다. 직장인들의 경우 직종에 따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직무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직무와 관련하여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직무스트레스의 의학적 치료는 병리적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들의 정신훈련 등 직장 내의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Lazarus와 Folkman, 1984). 병원에는 간호사가 차지하는 인력이 가장 많은데, 간호사

의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감, 우울증, 삶에 대한 불만, 음주, 흡연, 약물복용, 소진(Burnout)등과 같은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cCrane, 등 1987). 또한 3교대 근무와 특히 밤 근무 등 불규칙한 생활로 인하여 생활리듬의 주기가 파괴되어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적응장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김운규, 2002).

병원의 조직이 커지고 세분화 되면서 여러 가지 직업군이 생겨나면서 병원관련 산업에 근골격계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이 일반 산업부분보다 병원부문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진료 뿐만 아니라 연구와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서비스 공정이 복잡하게 존재하는 종합병원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단순 반복 작업형태보다는 복합적이고 비정형적인 직업형태라고 알려져 있다. 2001년 미국 보건서비스산업의 누적외상성질환(Disorders with Repeated Trauma, RDT)에 관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보건의료실험실 부문 RDT 만인율 (RDT incident rate per 10,000 full-time workers)은 42.0 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원 부문에서는 24.2로 나타나 일반산업부문(general industry)의 평균 23.2 보다 높게 나타났다(USBLS, 2002). 또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RDT 발생을 추이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산업부문에서 점점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병원 관련 산업 전체 및 세부 부문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ack, 2006). 여러 연구자들도 병원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MSD(Musculoskeletal Disorder) 발생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근래 3년간(2004년 - 2006년) 우리나라 MSD 요양 승인자는 업무상 질병 요양 승인자 전체의 52.1%, 45.3%, 68.3%를 각각 차지했으며, 병원을 포함한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에서 근골격계질환 요양 승인자는 매년 103명, 67명 및 209명으로 증가 추세였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4) THI에 관한 고찰

Today Health index는 일본 군마대학(University of Gunma, Japan)의 스즈키 등에 의하여 작성된 건강 조사표로서 Brodman 등(1951)에 의하여 고안된 건강조사표인 Cornell Medical Index의 단점으로 지적된 질문내용이 불명료하고 동양인들에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 항목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양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택적 호소를 중심으로 질문항목이 합리적으로 척도화 되도록 CMI를 수정 보완 한 것이다(Suzuki, 1979).

THI는 건강에 관한 증상호소를 실제로 가정하여 질병진단에 연결시킬 수 없나를 연구한 결과 처음에 만들어진 건강조사표가 THPI(Today Health Personality Inventory)이며, 이는 질문지 건강조사표의 대표적인 CMI(Cornell Medical index)의 질문 구성상 많은 문제점이 거론된 바 있어, CMI에 의한 수량화 내지는 질병의 판별진단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어 새로운 질문지 건강조사표의 작성을 시도한 것으로서 1973년 이후 일본에서 현재까지 그 타당성과 이용법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어 왔다(김윤신 등, 1989).

국내에서 THI 건강조사표를 이용하여 발표된 논문을 보면, 주양숙(1995)은 물리치료사의 심신건강상태를 알아봄으로 물리치료사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환경과 치료환자수의 적정관리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손종렬 등(2005)은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비행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정신적 긴장, 일정하지 않은 식사, 비행 피로, 불규칙한 작업, 수면주기와 관련하여 정신적 육체적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라 말하며, 이에 대해 건강조사표를 이용하여 승무원의 건강상태를 알아보았다.

건강에 대한 조사는 대상자의 자각증상을 점수화하여 건강수준을 평가

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질병유무와 진단명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지만 특정집단에 대한 대략적인 건강 수준을 평가하고, 의사의 문진 시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건강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회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김함겸 등, 2001).

THI의 12개 척도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THI 척도항목과 내용

척도항목	내 용
호흡기(A)	가래, 콧물, 기침, 재채기, 목이 아픔 등
눈과 피부(B)	피부가 약함, 가려움, 발진, 충혈 됨 등
소화기(C)	위장 상태가 나쁘고 아픔, 위가 더부룩함, 설사 등
구강과 항문(D)	혀가 부르툼, 입안에 열이 있음, 잇몸 색깔이 나쁘고 출혈, 입냄새, 배변 시 통증, 치질, 변비
다자각 증상(I)	수족이나 몸이 나른함, 드러눕고 싶음, 머리가 무겁고 멍하고 아픔, 허리통증 등
신경질(E)	신경질, 근심, 잔걱정, 민감함 등
공격성(F)	몸이 강함, 마음이 넓음, 살이 찢음, 추위를 느끼지 않는 등 심리적 외향성
생활불규칙(G)	늦잠을 잤, 식사 불규칙, 식욕부진, 몸이 나른함 등
충동성(H)	안절부절함, 발끈함, 생각하지 않고 행동함, 급한 성질, 불평불만이 많음,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경향 등
정서불안정(J)	사소한 일에 신경을 씀, 다른 사람 앞에서 일을 할 수 없음, 전전긍긍 함, 정신적인 피로감, 기분에 좌우됨 등
우울성(K)	슬픔, 고독함, 재미없음, 우울함, 자신이 없음 등
허구성(L)	자신을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 허영심, 잘 보이고 싶어 거짓말을 하는 경향 등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조사는 경기도내 대학병원 3곳을 임의로 선정하고, 임의로 선정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원이 현지에서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대상 응답자들이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 관련 항목, THI 건강 조사 설문지에 자기 기입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 2010년 10월 22일 까지 이었다. 조사에 앞서 3일간 예비조사를 하여, 질문내용의 정확성, 문구수정 등을 통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81부 중 응답 내용이 불확실한 6부를 제외하고 275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고용형태, 연령, 성별, 직업군, 연봉, 근무형태와 같은 특성을 조사하였고, Belloc과Breslow(1972)가 제시한 생활습관 변수 중 흡연여부, 음주습관, 수면시간과 관련된 3항목을 조사하였다.

THI(Todai Health Index) 건강조사표 설문 문항에 의한 건강 호소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THI는 자각증상의 척도화, 표준화 등 수량적 처리 및 평가가 용이하고, 집단의 특성을 관찰 분석할 수 있으며, 약 10개 정도의 유사한 질문들이 각각의 척도 항목에 포함되어져 12개의 척도를 구성되어져 있다. 정신적, 신체적인 자각증상을 조사하는 THI 건강조사표는 선택 할 수 있는 답이 3개이므로 응답자가 대답하는데 부담이 적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82 이었다.

정신적, 신체적 자각증상의 척도를 분류하면 호흡기(A), 눈과 피부(B), 소화기(C), 구강과 항문(D), 생활불규칙(G), 다자각증상(I)을 신체적 건강에 관한 자각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하였고, 신경질(E), 공격성(F), 충동성(H), 정서불안정(J), 우울성(K), 허구성(L)을 정신적 건강에 관한 자각증상을 측정 할 있는 척도로 하였다(주양숙, 1995).

THI는 모두 13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7문항은 12개척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5문항은 2개척도 종류에 동시에 해당되고 있다(최치원, 1999).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은 7문항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항목에 포함되는 123개의 항목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THI 건강조사표의 12개 척도에 관한 설문항목과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2. Scales of Todai Health Index

Scales	Abbreviation	No. of Questions
Multiple Subjective scale	다자각증상(I)	17
Respiratory scale	호흡기(A)	10
Eye and Skin scale	눈과 피부(B)	9
Mouth and Anus scale	구강과 항문(D)	10
Digestive scale	소화기(C)	9
Impulsiveness scale	충동성(H)	9
Life scale	생활불규칙(G)	11
Mental irritability scale	정서불안정(J)	12
Depression scale	우울성(K)	11
Aggressiveness scale	공격성(F)	7
Nervousness scale	신경질(E)	8
Lie scale	허구성(L)	10
Total		123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일반적 특성 6문항과 생활습관 3문항에 대해 교차분석과 카이제곱검정하였고, THI 건강조사 12개 항목 123개 문항은 응답 란 왼쪽에서부터 3, 2, 1점을 주고 질문 끝에 “*”가 붙은 것은 1, 2, 3점을 준다. 12개의 척도를 구성하고 있고, 모든 질문의 응답은 “예”, “어느 쪽도 아님”, “아니오”의 3선택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각증상이나 호소율이 높고 건강 호소율이 높을수록 건강 수준이 나쁘도록 배점되어 있다. 각 항목의 문항수×3이 최고점이며, 각 항목의 문항수×1이 최하점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함수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2.0K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

조사대상자들의 분포는 정규직 149명(54.2%), 비정규직이 126명(45.8%)이고 성별은 남성 86명(31.3%), 여성이 189명(68.7%)이었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141명(51.3%), 30세 이상이 134명(48.7%)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간호사가 152명(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형태는 주간근무가 145명(52.7%), 3교대 근무 130명(47.3%)으로 조사되었다. 연봉의 분포는 비정규직군의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그룹에 66명(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규직군의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그룹에 58명(21.1%)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봉분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문 항목에서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분포는 비흡연

이 205명(74.5%)이었고, 흡연경험이 있는 그룹이 70명(25.5%)이었다. 음주 횟수는 주1-2회가 121명(44%)으로 가장 많았다. 수면 시간은 6-7시간에 123명(44.7%)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

단위 : 명(%)

특성	구분	정규직 (N=149)	비정규직 (N=126)	전체 (N=275)	P-값
성별	남	44(16)	42(15.3)	86(31.3)	.499
	여	105(28.2)	84(30.5)	189(68.7)	
연령	30세 미만	55(20)	86(31.3)	141(51.3)	.521
	30세 이상	94(34.1)	40(14.6)	134(48.7)	
직업	간호사	98(35.6)	54(19.6)	152(55.2)	.414
	의료기사	26(9.5)	26(9.5)	52(19)	
	기타직	25(9.1)	46(16.7)	71(25.8)	
근무 형태	주간근무	71(25.8)	74(26.9)	145(52.7)	.242
	3교대근무	78(28.4)	52(18.9)	130(47.3)	
연봉	2천만원 미만	0(0)	55(20)	55(20)	<0.001
	2-3천만원 미만	44(16)	66(24)	110(40)	
	3-4천만원 미만	58(21.1)	5(1.8)	63(22.9)	
	4천만원 이상	47(17.1)	0(0)	47(17.1)	
흡연 경험 유무	흡연 유	36(13)	92(33.4)	70(25.5)	.759
	흡연 무	113(41.1)	34(12.5)	205(74.5)	
음주 횟수	주 1-2회	61(22.2)	60(21.8)	121(44)	.237
	월 1-2회	61(22.2)	50(18.2)	111(40.4)	
	비음주	27(9.8)	16(5.8)	43(15.6)	
수면 시간	6시간 미만	24(8.8)	21(7.6)	45(16.4)	.888
	6-7시간	70(25.4)	53(19.3)	123(44.7)	
	7시간 이상	55(20)	52(18.9)	107(38.9)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호소점수 비교

1) 고용형태

현재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149명과 비정규직 근로자 126명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THI 항목별 건강 호소점수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보다 높은 항목은 A(호흡기), B(눈·피부), C(소화기), E(신경질), F(공격성),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에서 높게 나타난 THI 호소점수는 D(구강·항문),G(생활불규칙), I(다자각증상)항목으로 나타났다(표 4).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E(신경질),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점수가 높고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다.

표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룹 간 THI 호소점수

THI 항목	정규직(N=149)	비정규직(N=126)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A(호흡기)	17.6±3.5	17.9±3.0	.574
B(눈·피부)	17.1±3.7	17.4±3.3	.551
C(소화기)	17.1±3.9	17.6±3.9	.292
D(구강·항문)	15.0±2.7	14.9±2.3	.886
E(신경질)	16.2±2.9	17.7±2.7	.000*
F(공격성)	14.3±2.2	14.5±2.1	.337
G(생활불규칙)	20.9±3.5	20.8±3.3	.824
H(충동성)	15.5±2.9	17.1±2.3	.000*
I(다자각증상)	32.8±5.9	32.8±4.9	.938
J(정서불안정)	20.3±4.7	21.8±4.4	.005*
K(우울성)	20.0±4.4	22.2±3.7	.000*
L(허구성)	19.8±3.1	21.7±2.8	.000*

*($P<0.05$)

2) 성별

성별에 따른 THI 건강 호소점수는 여자에서 남자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항목이 B(눈·피부), C(소화기), E(신경질), F(공격성), E(신경질), I(다자각 증상)로 나타났다. 여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THI 호소점수를 보면 비정규직의 E(신경질), H(충동성), K(우울성), L(허구성)항목의 점수가 정규직보다 높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

남자의 THI 호소점수 비교에서는 비정규직의 E(신경질),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의 점수가 정규직보다 높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성별에 따른 THI 호소점수

THI 항목	여자		P-값	남자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정규직 (N=105)	비정규직 (N=84)		정규직 (N=44)	비정규직 (N=42)	
A(호흡기)	17.7±3.4	17.8±2.9	.707	17.6±3.7	17.9±3.2	.678
B(눈·피부)	17.4±3.4	17.5±3.3	.785	16.5±4.3	17.1±3.4	.482
C(소화기)	17.3±3.8	17.9±3.8	.292	16.6±4.2	17.0±4.1	.651
D(구강·항문)	15.0±2.6	14.6±2.0	.260	15.0±3.0	15.6±2.6	.278
E(신경질)	16.4±2.6	17.8±2.4	.000*	15.5±3.5	17.4±3.2	.015*
F(공격성)	14.7±2.0	15.0±1.7	.294	13.3±2.3	13.6±2.6	.524
G(생활불규칙)	21.3±3.5	20.8±3.2	.285	20.0±3.4	21.0±3.5	.225
H(충동성)	15.4±2.7	17.2±2.3	.000*	15.7±3.3	17.0±2.3	.040*
I(다자각증상)	33.5±5.4	33.1±4.8	.597	31.2±6.6	32.1±5.0	.474
J(정서불안정)	21.0±4.8	21.8±4.1	.271	18.4±3.9	21.8±3.8	.000*
K(우울성)	20.4±4.3	22.2±3.7	.003*	19.1±4.5	22.3±3.9	.001*
L(허구성)	19.9±3.0	21.6±2.8	.000*	19.6±3.2	21.9±2.7	.001*

*(P<0.05)

3) 연령

30대 미만의 호소점수 비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A(호흡기), B(눈·피부), C(소화기), F(공격성), I(다자각증상)항목의 평균점수가 비슷하였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E(신경질), H(충동성)항목의 점수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0대 이상의 호소 점수 비교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THI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E(신경질),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의 점수가 정규직보다 높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표 6. 연령대별 THI 호소점수

THI 항목	30대 미만		P-값	30대 이상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정규직 (N=55)	비정규직 (N=86)		정규직 (N=93)	비정규직 (N=40)	
A(호흡기)	17.8±3.5	17.8±2.9	.966	17.5±3.4	18.0±3.1	.499
B(눈·피부)	17.3±3.6	17.3±3.4	.997	16.9±3.8	17.4±3.2	.510
C(소화기)	17.2±3.9	17.2±3.8	.974	17.0±3.9	18.4±4.1	.060
D(구강·항문)	15.1±2.8	14.7±2.3	.372	14.9±2.7	15.4±2.1	.329
E(신경질)	16.6±2.8	17.8±2.7	.022*	15.9±3.0	17.5±2.8	.006*
F(공격성)	14.5±2.1	14.5±2.0	.977	14.2±2.3	14.6±2.4	.292
G(생활불규칙)	21.2±3.5	20.7±3.3	.412	20.8±3.5	21.2±3.4	.608
H(충동성)	15.8±3.2	16.9±2.3	.024*	15.3±2.7	17.6±2.2	.000*
I(다자각증상)	32.8±5.9	32.7±4.8	.966	32.8±5.9	32.9±5.1	.924
J(정서불안정)	21.6±4.9	21.8±4.0	.846	19.5±4.4	21.8±4.1	.007*
K(우울성)	21.1±4.5	22.0±3.6	.200	19.4±4.2	22.8±4.0	.000*
L(허구성)	20.6±2.5	21.4±2.7	.057	19.4±3.3	22.2±3.0	.000*

*(P<0.05)

4) 직업

간호사의 호소점수 비교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신체적 항목의 호소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정신적 항목의 점수가 높았으며, E(신경질), H(충동성),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료기사의 호소점수 비교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THI 모든 항목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A(호흡기), B(눈·피부), E(신경질), F(공격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타직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의 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7).

표 7. 직업군별 THI 호소점수

THI 항목	간호사		의료기사		기타직	
	정규직 (N=98)	비정규직 (N=54)	정규직 (N=26)	비정규직 (N=26)	정규직 (N=25)	비정규직 (N=46)
A호흡기	17.7±3.4	17.4±3.0	16.7±3.4	18.7±3.4*	18.4±3.7	18.0±2.6
B눈·피부	17.4±3.4	17.4±3.5	15.1±4.1	17.3±3.3*	17.9±3.8	17.3±3.2
C소화기	17.4±3.9	17.6±3.9	15.2±3.9	17.2±4.7	17.9±3.4	17.8±3.5
D구강·항문	15.0±2.6	14.4±2.0	13.9±2.7	15.0±2.1	15.9±2.7	15.5±2.6
E신경질	16.4±2.7	18.0±2.6*	15.1±3.6	17.3±2.8*	16.4±2.9	17.5±2.7
F공격성	14.7±2.0	14.9±1.6	12.7±2.0	14.3±2.4*	14.2±2.5	14.3±2.4
G생활불규칙	21.3±3.5	20.8±3.2	19.6±3.5	20.5±3.4	20.7±3.0	21.0±3.4
H충동성	15.3±2.8	17.3±2.5*	15.6±2.8	16.8±2.3	16.1±3.4	17.2±2.1
I다자각증상	33.4±5.4	32.9±5.2	31.2±7.0	32.9±4.9	32.5±6.5	32.6±4.6
J정서불안정	20.9±4.8	21.9±4.2	18.8±4.8	21.5±2.7*	19.2±3.8	21.8±4.4*
K우울성	20.2±4.4	22.1±3.9*	19.0±4.6	22.2±3.5*	20.4±4.3	22.5±3.7*
L허구성	19.8±3.0	21.4±2.6*	19.8±3.6	22.2±2.5*	19.9±2.7	21.7±3.1*

*(P<0.05)

5) 근무형태

주간근무 호소점수 비교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A(호흡기), E(신경질),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높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교대근무 호소점수 비교에서는 정규직의 신체적 항목의 점수가 비정규직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비정규직의 E(신경질), H(충동성), K(우울성), L(허구성)항목의 평균점수가 정규직보다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8).

표 8. 근무형태별 THI 호소점수

THI 항목	주간근무		P-값	3교대근무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정규직 (N=71)	비정규직 (N=74)		정규직 (N=78)	비정규직 (N=52)	
A(호흡기)	17.0±3.1	18.2±3.1	.018*	18.2±3.7	17.4±2.7	.144
B(눈·피부)	16.2±3.7	17.2±3.4	.091	17.9±3.5	17.5±3.2	.521
C(소화기)	16.5±3.8	17.5±4.0	.121	17.6±3.9	17.7±3.8	.942
D(구강·항문)	15.0±2.8	15.0±2.1	1.00	15.0±2.6	14.9±2.5	.838
E(신경질)	16.0±3.1	17.8±2.6	.000*	16.3±2.8	17.5±2.8	.018*
F(공격성)	13.7±2.1	14.3±2.4	.097	14.8±2.2	14.8±1.7	.959
G(생활불규칙)	20.4±3.5	20.8±3.2	.475	21.4±3.4	20.9±3.5	.410
H(충동성)	15.8±2.8	17.2±2.1	.002*	15.2±2.9	17.1±2.5	.000*
I(다자각증상)	32.8±6.0	33.1±5.1	.712	32.9±5.8	32.3±4.6	.543
J(정서불안정)	19.6±4.5	22.0±4.1	.001*	20.8±4.8	21.4±3.9	.462
K(우울성)	19.5±4.4	22.4±3.6	.000*	20.6±4.4	22.1±3.9	.049*
L(허구성)	19.5±3.5	21.8±3.0	.000*	20.0±2.6	21.5±2.5	.003*

*(P<0.05)

6) 연봉

연봉별 THI 건강 호소점수에서는 2천만원 미만 그룹에서 G(생활불규칙), H(충동성), J(정서불안정), L(허구성)항목이 가장 높은 건강 호소 점수를 나타냈고,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그룹에서는 B(눈·피부), C(소화기), E(신경질), F(공격성), K(우울성)항목의 점수가 연봉별 점수비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소점수 비교에서는 2천만원 미만 군에서 높게 호소된 H(충동성), J(정서불안정), L(허구성)항목과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그룹에서 높게 호소된 E(신경질), K(우울성)항목이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다(표 9).

표 9. 연봉별 THI 호소점수

THI 항목	연봉별				P-값
	2천만원< (N=55)	2-3천만원 (N=110)	3-4천만원 (N=63)	4천만원≤ (N=47)	
A(호흡기)	17.9±3.4	17.9±3.1	17.3±3.8	18.1±2.7	.592
B(눈·피부)	16.9±3.7	17.7±3.4	16.9±3.7	17.1±3.7	.409
C(소화기)	17.1±4.6	17.8±3.8	16.7±3.9	17.5±3.6	.383
D(구강·항문)	14.6±2.5	15.1±2.4	14.8±3.1	15.5±2.1	.303
E(신경질)	17.4±2.7	17.5±2.9	16.1±3.1	16.1±3.0	.002*
F(공격성)	14.4±2.4	14.8±2.1	14.1±2.4	14.1±2.0	.220
G(생활불규칙)	21.7±3.3	21.0±3.4	20.9±3.6	20.0±3.4	.092
H(충동성)	17.3±2.7	16.6±2.8	15.8±2.7	14.9±2.2	.000*
I(다자각증상)	32.5±5.5	33.2±5.2	31.7±5.4	34.0±6.1	.128
J(정서불안정)	23.0±4.8	21.6±4.4	20.3±4.0	18.3±3.4	.000*
K(우울성)	21.9±4.2	22.1±4.2	20.3±4.2	18.7±3.8	.000*
L(허구성)	22.0±3.0	21.3±3.0	20.0±2.9	18.8±3.0	.000*

*($P<0.05$)

3. 생활습관에 따른 건강 호소점수

1) 흡연

흡연경험이 있는 그룹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THI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E(신경질),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흡연 그룹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정신적 항목에 해당하는 E(신경질), H(충동성),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0).

표 10.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THI 호소점수

THI 항목	흡연경험 유		P-값	비흡연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정규직 (N=36)	비정규직 (N=34)		정규직 (N=113)	비정규직 (N=92)	
A(호흡기)	17.7±3.7	18.0±2.7	.693	17.6±3.4	17.8±3.1	.693
B(눈·피부)	16.7±4.1	17.2±3.4	.593	17.2±3.6	17.4±3.3	.698
C(소화기)	17.5±3.8	17.7±3.9	.826	16.9±3.9	17.5±4.0	.287
D(구강·항문)	15.9±2.8	16.4±2.4	.437	14.7±2.6	14.4±2.0	.396
E(신경질)	16.3±3.2	17.9±2.8	.036*	16.1±2.9	17.6±2.7	.000*
F(공격성)	13.5±2.1	13.6±2.6	.917	14.5±2.2	14.9±1.8	.204
G(생활불규칙)	19.9±3.4	21.0±3.3	.178	21.3±3.5	20.8±3.3	.319
H(충동성)	15.7±3.2	17.4±2.3	.014*	15.4±2.8	17.0±2.3	.000*
I(다자각증상)	32.2±6.1	32.6±4.9	.737	33.1±5.8	32.9±4.9	.793
J(정서불안정)	18.6±3.6	22.7±3.8	.000*	20.8±4.9	21.4±3.8	.346
K(우울성)	20.2±4.5	23.5±3.2	.001*	20.0±4.4	21.8±3.8	.002*
L(허구성)	19.9±3.3	22.3±2.7	.002*	19.8±3.0	21.4±2.8	.000*

*(P<0.05)

2) 음주

술을 주 1-2회 마시는 그룹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 1-2회 마시는 그룹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B(눈·피부), C(소화기), E(신경질), H(충동성),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음주 그룹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신적 항목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1).

표 11. 음주횟수별 THI 호소점수

THI 항목	주 1-2회		월 1-2회		비음주	
	정규직 (N=61)	비정규직 (N=60)	정규직 (N=61)	비정규직 (N=50)	정규직 (N=27)	비정규직 (N=16)
A호흡기	18.0±3.3	17.6±3.1	17.7±3.4	18.3±2.6	16.7±3.9	17.5±3.3
B눈·피부	17.3±3.6	16.4±3.4	16.9±3.8	18.8±2.6*	17.2±3.5	16.3±3.9
C소화기	17.8±3.5	17.5±4.1	16.6±3.8	18.2±3.6*	16.7±4.3	16.2±3.9
D구강·항문	15.6±2.6	15.1±2.5	14.8±2.9	15.0±2.1	14.0±2.1	14.1±2.0
E신경질	16.7±3.2	17.8±2.7	16.0±2.8	18.0±2.7*	15.3±2.5	16.5±2.5
F공격성	14.0±2.5	14.5±2.3	14.5±1.9	14.7±2.1	14.4±2.3	14.3±1.4
G생활불규칙	20.6±3.5	21.4±3.2	21.7±3.3	20.7±3.5	19.8±3.7	19.5±2.3
H충동성	15.5±3.2	17.4±2.5*	15.8±2.9	17.1±2.1*	14.8±2.2	15.6±1.9
I다자각증상	32.7±5.9	32.3±4.7	33.2±5.7	33.8±4.9	32.4±6.2	31.5±5.5
J정서불안정	20.1±4.5	22.3±4.4*	20.3±4.9	21.7±3.9	20.4±4.8	20.1±2.2
K우울성	20.6±4.5	22.2±4.0*	20.3±4.4	22.9±3.2*	18.3±3.9	20.1±3.9
L허구성	20.0±3.0	22.0±2.9*	19.9±3.3	21.7±2.6*	19.2±2.7	20.3±2.9

*(P<0.05)

3) 평균수면

6시간 미만 군에서 비정규직의 호소점수가 정규직의 호소점수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A(호흡기), E(신경질), F(공격성), H(충동성), L(허구성)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군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의 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다. 7시간 이상 군에서는 E(신경질), H(충동성),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2).

표 12. 평균수면 시간별 THI 호소점수

THI 항목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정규직 (N=24)	비정규직 (N=21)	정규직 (N=70)	비정규직 (N=53)	정규직 (N=54)	비정규직 (N=52)
A호흡기	17.0±3.5	19.5±3.2*	18.2±3.8	17.5±2.8	17.3±2.9	17.6±2.9
B눈·피부	17.5±4.2	17.9±3.1	17.0±3.3	17.1±3.3	17.1±3.9	17.3±3.4
C소화기	17.1±4.6	18.2±3.4	17.4±3.7	17.2±4.3	16.7±3.8	17.7±3.7
D구강·항문	14.8±2.5	15.9±2.1	15.1±2.5	15.0±2.4	14.8±3.1	14.5±2.1
E신경질	16.6±2.8	18.9±2.1*	16.6±2.8	17.5±3.0	15.6±3.1	17.3±2.4*
F공격성	14.5±2.5	16.1±1.8*	14.2±2.1	14.5±2.0	14.2±2.2	14.0±2.1
G생활불규칙	22.2±4.1	23.4±3.5	21.2±3.3	20.7±2.8	20.0±3.2	20.0±3.2
H충동성	15.6±3.2	18.8±2.3*	15.7±3.1	17.1±2.3*	15.2±2.6	16.4±1.9*
I다자각증상	32.1±5.8	33.6±3.7	33.0±5.4	32.8±5.7	32.9±6.6	32.5±4.4
J정서불안정	22.2±6.0	23.8±5.0	20.0±4.0	21.6±4.3*	19.9±4.7	21.1±2.8
K우울성	21.6±5.1	23.9±3.7	20.1±4.0	22.2±3.6*	19.4±4.4	21.6±3.7*
L허구성	20.2±3.5	22.5±3.0*	19.9±2.7	21.9±2.8*	19.6±3.2	21.1±2.6*

*(P<0.05)

4.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THI 호소점수와의 관계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이 THI 전체 호소점수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 설명력(r^2)은 19%였다(표 13). 성별이 THI 전체 호소점수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유의한 관련변수로 나타났다($p < 0.01$). 생활습관에서는 비음주에 비해 주 1-2회 술을 마시는 그룹과 7시간 이상 수면을 하는 그룹에 비해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과 6시간미만 수면을 하는 그룹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 신체적 호소점수와 독립변수간의 관련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관련성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비음주에 비해 월 1-2회 술을 마시는 그룹에서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설명력(r^2)은 9.1%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THI 정신적 호소점수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변수가 THI 정신적 호소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가장 많아 설명력(r^2)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련변수로 작용한 기여도는 성별, 음주횟수, 수면시간, 연봉, 고용형태 순으로 나타났고, THI 전체 호소점수와의 관계와 THI 신체적 호소점수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관련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던 고용형태와 연봉이 THI 정신적 호소점수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관련변수로 나타났다($p < 0.05$). 연봉이 낮은 그룹 군과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THI 정신적 호소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표 13.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THI 호소점수와 의 관계

Independent variables		THI 전체 호소점수			신체적 호소점수			정신적 호소점수			
		β	SE	P	β	SE	P	β	SE	P	
고용형태	(정규직)										
성 별	비정규직	.099	4.553	.266	.041	2.994	.659	.151	2.099	.042*	
	(남자)										
직 업	여자	.205	4.295	.009**	.138	3.214	.093	.218	2.487	.003**	
	(간호사)										
연 봉	의료기사	-.120	4.464	.079	-.115	2.936	.111	.023	2.328	.161	
	기타직	-.058	3.642	.344	.019	2.395	.770	.029	2.327	.137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 연봉 < 3천만원	-.004	4.483	.928	.019	2.948	.657	.019	2.979	.756	
음 주	3천만원 ≤ 연봉 < 4천만원	-.138	6.222	.178	-.104	4.092	.195	-.171	2.366	.038*	
	4천만원 이상	-.098	6.304	.327	.070	4.488	.477	-.285	3.215	.003*	
	(비음주)										
수면시간	월 1-2회	.161	4.444	.070	.126	3.099	.177	.196	2.469	.014*	
	주 1-2회	.173	4.533	.015*	.112	2.981	.136	.212	2.591	.010*	
	(7시간 이상)										
	6시간이상-7시간미만	.139	3.293	.031*	.093	2.166	.166	.146	2.455	.015*	
	6시간미만	.198	4.491	.003**	.124	2.953	.068	.221	3.722	.000**	
$r^2 = .190$				$r^2 = .091$				$r^2 = .284$			

*P<0.05 , ** P<0.01

신체적 호소점수(A, B, C, D, G, I항목), 정신적 호소점수(E, F, H, J, K, L항목)

IV. 고 찰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서 직업안정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정규직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나채인, 2005). 또한 의료기관은 여러 직종의 인력이 조직 속에서 자아실현은 물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활동하는 노동 집약적인 조직이다.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매우 다양한 직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 특성상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 심리적으로 위험요인에 폭로될 수 있다(백도명, 1992).

본 연구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THI 호소점수는 신체적 항목에 해당하는 A(호흡기), B(눈·피부), D(구강·항문), G(생활불규칙), I(다자각증상)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정신적 항목에 해당하는 F(공격성)를 제외한 E(신경질),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비정규직의 호소점수가 더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봉에 따른 THI 호소점수 비교에서도 연봉이 낮은 두 그룹에서 호소점수가 높고 유의한 항목이 E(신경질),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로 나타나서 고용형태와 연봉에 따른 유의항목이 일치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군과 연봉이 낮은 그룹에서 THI 정신적 호소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Kim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건강수준이 낮은 것은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수준이 더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직업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고용형태와 낮은 연봉은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일반적 특성과 THI 정신적 호소점수와의 관계에서 고용형태와 연봉은 유의한 관련변수로 나타났다(표 13).

병원이라는 특성상 연구 대상자의 68.8%를 여성근로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87.5%가 여성인 항공기 승무원의 건강상태에 관한 손종렬 등 (2005)의 연구와 비슷한 호소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THI 건강 호소점수를 보면 특히 G(생활불규칙), I(다자각증상), J(정서불안정)항목에서 여성의 호소점수가 높은 점이 일치하였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박재규(2004)의 고용형태와 주관적 건강인식연구는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남성 정규직의 경우 '건강하다'가 87.7%,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74.4%, 여성 정규직근로자의 83.4%,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의 66.7%가 응답하여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성별과 고용형태를 고려한 유형에서 가장 건강이 좋지 못한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Harenstam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의 공공 부문과 사기업 남녀 노동자 각각 104명씩을 조사한 결과, 구조조정과 노동 조직의 변화가 노동자의 정신사회적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에게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THI 호소점수가 높았고, 비정규직군의 남성보다 여성에서 THI 호소점수가 높았다.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한 THI 호소점수와 의 관계를 보면 THI 전체 호소점수와 THI 정신적 호소점수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기여도가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3).

일본 오사카의 대형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Kunugita 등(1989)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근로자의 THI 호소 점수에서 B(눈·피부), I(다자각 증상), J(정서적불안정)항목이 남성근로자 보다 높았고, 남성은 F(공격성), L(허구성)항목이 높았다고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의 B(눈·피부), I(다자각증상), J(정서적불안정)항목의 점수가 남성의 호소점수 보다 높았고, 남성 호소점수에서 F(공격성)항목은 여성보다 낮게 나타나고, L(허구성)항목은 비정규직의 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THI

호소점수가 일본의 대형 기업 근로자의 THI 호소점수와 비슷하지만 남성의 호소점수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연구시점과 작업장의 차이 등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향후 동등한 조건에서의 연구 비교가 있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이 THI 정신적 호소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 수면시간과 음주횟수는 유의한 관련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Breslow(1980)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수준과 연관성이 있는 건강행위로 7가지의 건강행위실천(Health Practice)에는 흡연, 음주, 운동, 체중, 수면, 아침식사 및 간식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적조사 연구에서 흡연, 음주, 운동, 체중, 수면이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좋은 생활습관을 가질수록 사망률이 낮았다고 한다. 허성욱 등(1996)에 의해 이루어진 건강측정도구를 이용한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들에서의 스트레스 평가 결과를 보면 근로자들의 흡연습관, 수면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음주상태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정윤정(2007)은 평균수면 시간은 하루에 7~8시간 정도를 가장 바람직한 수면시간으로 하었을 때 56.5%로 조사자의 절반 정도만 바람직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그룹에서 전체적인 증상 호소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유범희(2010)의 직장인 수면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균수면이 6시간 36분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명선(1996)의 “근로자의 생활습관이 THI에 의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비하여 THI 12개의 모든 항목에서 건강 호소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6시간 미만그룹과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그룹이 전체의 61.1%를 차지하고 있고, 6시간 미만그룹의 B(눈·피부), E(신경질), F(공격성), G(생활불규칙), H(충동성), J(정서불

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증상 호소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습관 행태와 관련된 변수 중 평균수면 시간이 THI 건강 호소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의 제한점으로 연봉에 따른 THI 건강 호소점수 비교 분석에서 2천만원 미만그룹은 정규직이 분포하지 않았고, 4천만원 이상그룹에는 비정규직이 분포하지 않았다. 이에 연봉별 THI 건강 호소점수 비교에서 정규직군과 비정규직군을 나누지 않고 연봉차이에 따른 비교를 하였다.

연구의 제한으로 조사대상자를 무작위 표본 추출하지 못하고, 임의로 3곳의 대학병원을 선정한 점과 조사 직업군 각각의 표본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 연구 결과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연구에서는 대학병원 선정에 있어서도 무작위 표본 추출 후 각각의 조사모집단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 연구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에 의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응답자의 주관적 성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근로자의 건강상태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대학병원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비교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이 THI 건강 호소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았다는 점이 기존연구와 다른 부분이고,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우울증 척도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정신적 건강을 비교한다면 비정규직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THI(Todai Health Index)를 이용하여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생활 습관 행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THI 건강 호소점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정규직이 149명(54.2%), 비정규직이 126명(45.8%) 이었고, 조사 대상자 275명 중 189명(68.7%)이 여성 이었다. 직업군에서는 간호사가 152명(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 습관 행태에서는 음주횟수 주 1-2회 그룹이 121명(44%)이었고, 평균 수면시간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그룹이 123명(44.7%)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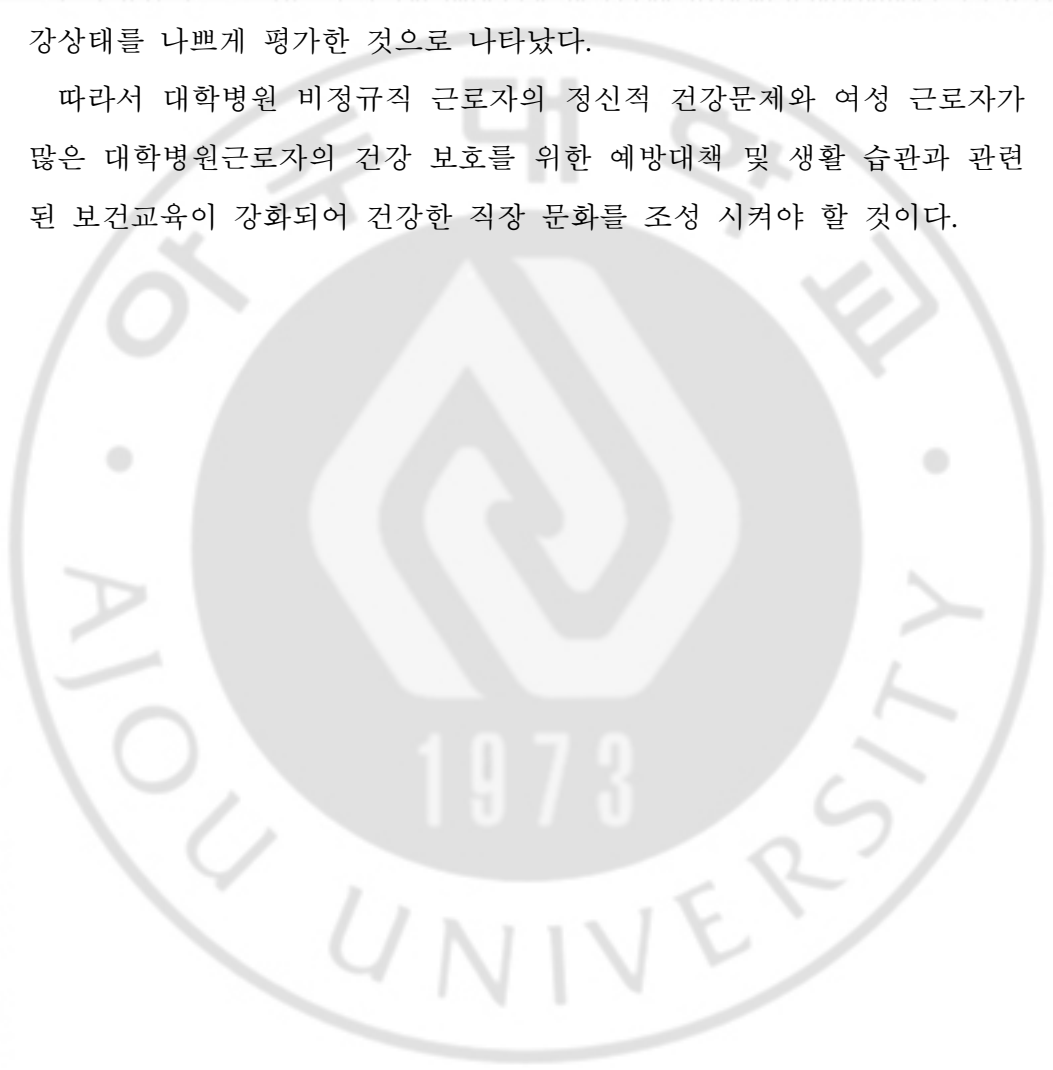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THI 호소점수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12개의 THI항목 중 9개의 항목이 비정규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경질(E), 충동성(H), 정서불안정(J), 우울성(K), 허구성(L)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THI 호소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그룹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THI 호소점수를 보면 비정규직의 E(신경질), H(충동성), K(우울성), L(허구성)항목의 점수가 정규직보다 높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그룹의 THI 호소점수 비교에서 비정규직의 E(신경질),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의 점수가 정규직보다 높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경험이 있는 그룹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모든 THI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E(신경질),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수면 시간별 점수비교에서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그룹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H(충동성), J(정서불안정), K(우울성), L(허구성)항목의 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를 통하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 호소점수가 정규직보다 높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THI 신체적 항목의 점수보다 THI 정신적 항목의 점수에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병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문제와 여성 근로자가 많은 대학병원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대책 및 생활 습관과 관련된 보건교육이 강화되어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운규. 교대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2002;14(3): 247-256.

김윤신, 고응린. Todai Health Index(THI) 건강조사표의 분석방법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계량의학교실. 한국보건통계학회지 1989.

김함겸, 김화선. THI를 이용한 방사선사의 건강수준평가. 대한 방사선기술 연구회지 2001;4(2):59-64.

길광철. 의료산업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관한 고찰[석사학위 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9.

나채인.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간의 직무만족도 차이 연구[석사학위 논문]. 충북: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05.

박재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 및 생활만족 변화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4;10(18):223-245.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병원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 특성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결과보고서. 2007.

이명선. 근로자의 생활습관이 THI에 의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교; 1996.

이상윤, 최경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건강. 건강형평성 학회; 2004.

이준영 등. NIOSH 직무스트레스 모형을 적용한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원인과 직무만족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이향란. 병원근무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백도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3;15(2):13-22.

백도명. 비 전염성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본 병원근무상의 건강유해 요인. 대한간호 1992;31(3):12-21.

손미아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손종렬 등. Todai Health Index를 이용한 항공기 승무원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J Environ Toxicol 2005;20(2):153-159.

정윤정. THI를 이용한 의료기사의 건강수준평가[석사학위 논문]. 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 보건대학원; 2007.

조애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9.

주양숙. Todai Health Index(THI)에 의한 물리치료사의 건강상태 평가[석사학위 논문]. 전북: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5.

최치원. THI에 의한 치과 의사들의 건강실태 및 건강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9.

허성옥 등.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를 이용한 사무직 및 생산직 근로자들에서의 스트레스 평가, 예방의학회지 1996; 29(3): 609-616.

유범희. 직장인 수면실태 조사. 대한수면학회; 2010.

사람입국 일자리 위원회. 비정규직 실태 및 정책과제. 비정규직 개념 및 정의 제73회 국정과제 본보고서; 2006. 쪽 1-2.

Belloc NB, Breslow L. Relationship of Physical health status and health practice. *Prev Med* 1972;1:409-421.

Breslow CL, Enstrom JE. Persistence of health habits and their relationship to mortality. *Prev Med* 1980;9:469-483.

Brodman K, Albert J, Erdmann J, Harold G, Todd H. The cornell medical index-health questionnaire. *JAMA* 1951;145(3):152-157.

Cross E, Work organization and stress, social stress.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70;54-110.

Feldman DC, Doeringhaus HI, Turnley WH. Managing temporary workers: a permanent & HRM challenge. *Organizational Dynamics* 1994.

Harenstam A. Work life and organisational changes and how they are perceived by employees. in: *Health Effects of the New Labour Market*. New York: Plenum Press, 1999. pp. 105-127.

Kim MH, Kim CY. Is precarious employment damaging to self-rated health?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s, using longitudinal data in South Korea. *Soc Sci Med* 2008; 67(12):1892-1994.

Kalimo R, El-batawi MA, Cooper CL. Psychosocial factors at work and their relation to health. WHO 1987.

Kunugita N, Norimura T, Futamura K, Tsuchiya T. Annual changes of

THI score of workers in a large-sized enterprise. *J. uoeh* 1989;11(4):10-403.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McCrane E, Lambert V, Lambert C. Work stress hardness and burnout among hospital staff nurses. *Nursing Research* 1987;36(6):374-378.

Pack, Jk. *Exposure assessment and musculoskeletal disorder risk factors in hospital laboratories*[dissertation]. Dept. of Work Environment: Massachusetts University; 2006.

Suzuki S, Aoki S, Kusakari J. Relationship between the Scale of the cornell medical Index and todai health index. *Japanese Journal of Public Health* 1979;26:161-168.

Illness rate by type of illness - detailed industry 2001. United State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2. Available from <http://www.bls.gov/iif/oshsum.htm>.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과 관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순수하게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심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이지옥 (jw9771@naver.com)

I.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행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V표나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기타)

2. 귀하의 성별은?

남자 여자

3. 귀하의 연령은? 만 ()세

4. 귀하의 직업은?

간호사 의료기사 기타

5. 귀하의 근무 형태는?

주간 근무 3교대 근무

6. 귀하의 연봉은?

-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

7. 귀하의 흡연은?

- 흡연 비흡연 과거흡연

8. 귀하의 음주 횟수는?

- 주 1-2회 월 1-2회 비음주

9. 귀하의 평균수면 시간은?

- 6시간미만 6시간이상 - 7시간미만 7시간이상

II. 건강 조사표

건강에 대한 견해를 묻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V표나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즘 기침을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재채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목이 쉼 듯한 느낌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가래가 끓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콧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감기에 쉽게 걸립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숨을 쉴 때 쉬-소리가 납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목이 아프거나 아릿한 느낌을 갖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가래가 나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피부가 약한 편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 부스럼이 잘 생깁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4. 눈이 충혈 되어 새빨강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5. 눈이 쓰리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6.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7. 눈꺼풀이 무겁다고 느낀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8. 눈곱이 많이 낍니까?	<input type="checkbox"/> 많이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9. 피부가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0.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트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2. 명치 부분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3.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4. 이를 닦을 때 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5. 위장상태가 나쁜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6. 식후에 위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7. 위가 무겁거나 체한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8. 공복 시에 위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9. 입안이 부르트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0. 입이 부풀어 오르거나 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혀가 부르트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2. 잇몸 색깔이 나쁠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3.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납니까?	<input type="checkbox"/> 많이	<input type="checkbox"/> 조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4. 잇몸이 부르트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5. 잇몸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6. 변비가 있는 편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7. 대변을 볼 때 항문이 아픕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8. 치질로 인해 출혈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9. 신경이 예민한 편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0. 행동하기 전에 잘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1. 옷이나 손에 묻은 때가 마음에 걸립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2. 모든 일에 민감한 편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3. 모든 일에 열성적이라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4. 자신이 신경질적이라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5. 걱정을 잘 하는 편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6. 자신의 성격이 까다로운 편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7. 단것을 좋아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8. 추위를 타는 편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9. 자신의 체중에 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살찐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마른편
50. 술을 많이 마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조금	<input type="checkbox"/> 전혀 못 마심
51. 일어설 때 어지러운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2. 몸이 약한 편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3. 자신의 마음이 좁다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4.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5. 간식을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6. 식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7. 주위사람들로부터 얼굴색이 안 좋다는 말을 듣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8. 하는 일이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9. 요즘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항상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0. 요즘 몸이 나른합니까?	<input type="checkbox"/> 항상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1. 의사가 혈압에 관하여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저혈압	<input type="checkbox"/> 정상
62. 요즘 수면부족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3. 아침을 먹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항상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4. 식사가 불규칙적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5. 안절부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6. 무례한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7.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안절부절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8.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9.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때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0. 하찮은 일에 버럭 화를 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1. 누구에게 명령을 받으면 싫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2. 다른 사람이 옆에서 서두르면 화를 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3. 하던 일이 맘에 안 들면 그만 둡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4.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5. 현기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6. 머리가 멍한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7. 손발에 힘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8. 온몸이 구석구석 아픈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9. 머리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0. 군침을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1. 어깨가 결리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2. 눈이 어렴풋이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3.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4. 몸이 무겁거나 미열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5. 등이나 흉추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6. 빨리 걸으면 숨이 가빠집니까 ?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7. 속상한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8. 편하게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9.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머리가 지끈거립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0.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1. 얼굴이 빨개집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2. 지나간 일을 일부러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3.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기 쉬운 성격이라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4. 주위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신경이 쓰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5.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6. 정신적으로 피곤한 편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7. 시험을 볼 때 시험관이 앞에서 질문을 하면 땀이 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8. 낯선 장소에서는 당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9. 기분에 너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0. 하찮은 일에도 걱정이 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1. 높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떨립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2.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힙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3. 밤중에 갑작스러운 소리에 떠는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4. 야단을 맞으면 몸이 움츠러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5. 요즘 원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6. 인생이 허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7. 모임에 참가해도 항상 외로움을 느낍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8. 항상 재미없고 기분이 우울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9. 세상에서 혼자뿐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0.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1. 자신의 생활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2. 열등감을 느낍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3. 우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4. 요즘 무슨 일로 인해 자신이 없어졌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5. 부자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6. 종교서적이거나 철학서적을 읽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7.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잘 보이고 싶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8. 남의 소문을 얘기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9. 그날에 할 일을 꼭 끝마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0. 아는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1. 청중 앞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2. 신문사설을 읽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3.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어느쪽도아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ABSTRACT]

Comparison of Health Status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of University
Hospitals

Lee, Ji-woo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This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the general health status of the employees of university hospitals making use of Total Health Index(THI), one of the standard measurements for health. The study subjects were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who worked at the three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Gyeonggi region. The researcher conducted a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The Subjects and Method:

Three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Gyeonggi region were selected, and the subjects were 300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of the university hospitals. The subjects was asked to fill out general characteristics and living habits and THI health survey questionnair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were analyzed making use of t-test and ANOVA. To analyze functional relations of the variables, multi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12.0 K program.

Results and Conclusion:

As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149(54.2%) regular employees, and

126(45.8%) non-regular employees.. Among 275 employees who were the total subjects, 189 employees were female(68.7%).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I scores of both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revealed that, the groups of non-regular employees' score were higher in nine items among 12 THI items.

When examining the scores of complaints reported with Today Health Index (THI) by regular employees and non-regular employees as well in the female group, the complaint scores of non-regular employees on the items such as E(nervousness), H(impulsiveness), K(depression), and L(lie)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regular employees and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between.

The non-regular employees belonging to the group who had smoking experience showed higher average scores comparing with the regular employees through all items of THI,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tems such as E(nervousness), H(impulsiveness), J(mental irritability), K (depression), and L(lie). In comparison of the scores by average sleep times, the non-regular employees of 6-7 hour group marked higher scores than the regular employees in the items such as H(impulsiveness), J(mental irritability), K(depression), and L(lie)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fore, health education should be reinforced that concerned with non-regular employees' mental health issues of university hospitals, as well as their living habit.